

Eugeniy CHEVKENOV는 1971년3월8일, 불가리아 프로브디브의 한 유명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만6세에 처음 바이올린을 접한 그는 만 13세가 되던 해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첫 협연을 가졌다. 만 18세에 이미 불가리아 바이올린 국제콩쿨과 실내악 국제콩쿨에서 1등을 차지한 후, 빈 알반베르그협회,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 C. Zieherer-Stiftung, 스테파니콩쿨 그리고 그리스 베리아폴든마크 등 국제적으로 많은 상과 표창을 받았다.

체브케노브는 불가리아, 미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대학교수들 (Dankova, Popova, Stankoff, Kryssa, Sivo, Schubert, Staar)에게 사사 받았으며,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음악원과 빈국립음대에서 연주자과정과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석사). 대학 재학중 그는 빈필하모니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음반녹음과 해외공연, 찰츠부룩축제등에 참여하였다.

2000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음악분야에서 행한 그의 특별한 업적을 높이 평가해 명예시민권을 수여하였다.

2003년 그는 뉴욕의 Prestige Agency를 통하여 33개국(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 유럽의 여러나라등)에서 경력을 쌓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지휘자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뉴욕 카네기홀, 빈 Musikverein, 빈 Konzerthaus, 도쿄 메트로폴리탄 아트센터, 오사카 심포니홀, 멕시코시티 멜라스아트 등)

1999년 빈, 그는 음반회사 그람몰라에서 발간하는 비발디의 "사계"를 녹음 했으며 2002년 12월에는 첫 솔로앨범 "Recital"을 찰츠부룩에서, 2005년에는 빈 칼렉에서 두번째 솔로앨범인 "Eugenius"를 발간한다.

1997- 2001년사이 그는 빈 테레시아눔 청소년 여름음악아카데미에서 교육.

2000년 9월 계속해서 수업을 해오던 비너 구스타브말러 콘서트홀에 바이올린 교수로 임명.

그후, 미국, 일본, 중국, 멕시코, 불가리아, 그리스 등의 나라에서 마스터클래스 지도.

2006년 러시아 슈베르트 국제콩쿨 심사위원 역임.

2007년 플로브디브 D.페트코브 국제콩쿨 심사위원 역임.

그는 2002년 빈 콘체르탄테 앙상블 창단과 동시에 예술지도자, 지휘자, 솔리스트로써 유럽에서 미국, 더 나아가서는 베이징에서 열린 요한슈트라우스 기념음악제를 바탕으로 중국에서도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다.

2006년부터 빈 콘체르탄테 앙상블은 프리스티지 에이전씨 뉴욕을 대표하게 된다.

국민의회대통령은 2006년과 2007년 오스트리아 후원자로 앙상블을 인수하게 된다.

오이제니 체브케노브는 빈 유럽문화협회의 창단멤버이며 2008년 5월부터는 협회의 회장(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빈 유럽 문화협회는 2006년부터 비엔나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있음은 물론이고 이미 다수의 프로젝트(콘체르트, 오페라, 전시회, 워크숍, 문화여행 등...)가 여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형성된(편성된) 종합적 유럽형식의 세계 음악 중심지인 빈의 문화 조직이다.